

## 민주 '쏠림' 심화...국힘 '힘' 빠지나

탄핵안 가결 후 호남정치 지형 변화

정권교체 열망에 민주 지지 강화  
국민의힘 호남 당원 탈당 이어져  
혁신당·진보당 전략 수정 불가피

'12·3 계엄' 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향후 호남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980년 5월 계엄의 참상을 경험한 호남으로서는 '12·3 계엄' 공포가 향후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표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표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과거의 '맹목적 지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에서 진보 텃밭인 호남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고, '광주 당원 1만명 시대'를 열었지만 탄핵 사태로 '호남 열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 지난 10·16재선거에서 당의 전략을 쏟아부으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선전'을 예고했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호남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비판적 지지'에서 '맹목적 지지'하나 '12·3 계엄' 과 윤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무한 사랑'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윤 대통령에게 '진보 대선 후보 역대 최고 득표율'을 안겨주며 민주당에 매를 들었다. 또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지민비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성향을 보였다. 이 같은 호남 표심은 "민주당 각성에 대한 요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광주 36.26%·전남 39.88%보다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도 광주·전남



이재명-권성동 '약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일부 선거구에서 윤 대통령의 득표율이 40% 가까이 기록하는 등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하지만 '계엄 공포' 이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애정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부가 근소한 표차로 끝난 만큼, 과거의 '호남 몰표'가 다시 이어진다면 향후 각종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호남에서 자멸하나=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 대통령은 호남에서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로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다. 그는 광주에서 12.7%, 전남에서 11.4%, 전북에서 14.4%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호남 당원 모집에 나

섰고 광주시당 당원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서진정책'에 공을 들였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9월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소속 의원 68명에게 호남을 제2 지역구로 배정하는 등 공을 들였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만에 전 호남 지역에 후보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최근 국민의힘 호남 당원의 탈당이 이어지고, 불신도 커지고 있다. 호남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계엄'이라는 상처를 건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두 자리 수 지지율을 보이기도 힘들 전망이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이첩

이상민 사건도...중복수사 해소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둘러싸고 경쟁하던 검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주체를 공수처로 단일화 했다.

수사권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 이같이 협의했다.

오동은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 협의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관한 사건은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제차 요청했다. 답변 마감 시한이 오늘이었다.

협의를 따라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

분 수사를 진행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맡게됐다. 양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주체에 합의 한데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중복 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를 두고 위법수사와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합의됨에 따라 양 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권일용 교수 김난도 교수 유현준 교수 서경석 MC 김동환 대표

## 고수들의 명강연...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3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2025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3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5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23, 0663

光州日報社

여순사건특별법 개정...기대와 우려 교차 >6면

스포츠 기자 선정 2024 국내 10대 뉴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춘천 의암호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도민, 배우의 꿈을 응원합니다.  
영화감독을 꿈꾸는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영화로 마을을 연결하고 이웃을 만납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전라남도를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즐기는  
전남의 모든 순간,  
전남영상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

JNFC 전남영상위원회  
Jeonnam Film Commission